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월) 10:30 배포 2026. 11. 2.(월) 10:30

‘제61회 잡지의 날’ 기념, 잡지문화 발전 유공자 14명 포상

- 11. 2. 기념식 개최, 문화포장 도서출판원예 이주상 대표 등 유공자 14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잡지협회(회장 백동민)와 함께 11월 2일(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61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은 ▲문화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1명 등, 총 14명이다.

올해 문화포장은 ‘도서출판원예’ 이주상 대표가 받는다. 이주상 대표는 1983년에 국내 최초의 원예 전문지 「월간원예」를 창간해 40여 년간 농업·원예 분야의 전문 정보를 꾸준히 보급해 왔다. 전국 농업 현장을 취재해 우수 재배 기술과 농업인의 목소리를 전하며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오디오’ 성기명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 성기명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의 오디오 전문지 「월간 오디오」를 발행하며 음악산업과 오디오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대표가 받는다. 탁지원 대표는 종교 문제 연구가 고(故) 탁명환 소장이 설립한 월간 「현대종교」의 2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이비 종교 등을 취재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건강한 종교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지역 문화예술, 문학, 디자인, 농촌, 첨단산업,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잡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11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잡지의 날’은 근대 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일(1908. 11. 1.)을 기념해 1965년에 지정한 날로서, 정부는 매년 ‘잡지의 날’을 계기로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잡지인의 사기를 높이고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정보가 넘쳐날수록 믿을 수 있는 기획과 취재, 오래 곱씹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글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잡지가 새로운 독자와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진흥 방안을 ‘제4차 정기간행물 진흥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잡지문화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따로 붙임 주요 수상자 사진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2441)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24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중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6년 잡지문화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 정부포상(3명)

○ 포장(1명)

성 명	소속 / 직위	수공기간	주요 경력
 **이주상** (李株相)	도서출판원예 대표	43년 5월	- 1944년생 - 1983년~ **도서출판원예 대표** - 1995년~ 농업정보신문 발행인
1983년 국내 최초 원예전문지 「월간원예」를 창간하여 농업·원예 분야 전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전국 농업현장을 취재해 우수 재배기술과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			

○ 대통령 표창(1명)

성 명	소속 / 직위	수공기간	주요 경력
 **성기명** (成耆明)	㈜오디오 대표이사	40년 2월	- 1956년생 - 1986~1991년 월간 뉴미디어 근무 - 1991~1997년 ㈜하이파이저널 근무 - 2003년~ **월간 오디오 발행인**
1986년부터 잡지업계에 종사하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오디오 전문 매체 「월간 오디오」 발행인으로서 음악 산업 및 오디오 업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한국잡지협회 부회장직을 2회 역임하여 잡지 문화 발전에 기여함			

○ 국무총리 표창(1명)

성 명	소속 / 직위	수공기간	주요 경력
 **탁지원** (卓志元)	월간 현대종교 대표	32년 3월	- 1968년생 - 2000~2010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전문위원 - 2016~2018년 한국기독교잡지협회장 - 1994년~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종교 문제 연구가 故 탁명환 소장이 설립한 월간 「현대종교」의 2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이비 종교 등을 취재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회에 전달하여 건강한 종교 문화 형성에 기여함			

□ 장관 표창(11명)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주요 공적
1	강금주 (1969.09.13.)	아트플랜컴 대표	2016년 창간한 「사각아트」를 63호째 발행하며 지역 문화예술을 기록·확산하고, 700여 명의 작가 소개와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함
2	김종상 (1965.02.28.)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언론과 출판을 통해 조세·금융 관련 정책, 제도 및 전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회계 분야의 지식 확산과 실무 역량 향상에 기여하며, 건전한 조세문화 조성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3	박미경 (1967. 02. 28)	㈜감커뮤니티 대표이사	디자인 전문가와 기업, 독자, 산업 관계자를 연결하는 전문 미디어 플랫폼 「월간 DECO」의 대표로서 국내 공간디자인 산업 네트워크 확산과 디자인 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함
4	양문규 (1961.06.25)	시와에세이 대표	2005년 계간 「시에」를 창간해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2009년 시에문학회 무크지 「시에티카」로 한국문학 저변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 등을 주관하면서 지역 문학 활성화에 기여함
5	이범석 (1972.08.18.)	㈜고래실 대표이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월간 옥이네」를 발행하면서 농촌의 삶을 108호까지 꾸준히 담아내고 있으며, 지역 소멸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함.
6	정기옥 (1956.11.05)	리토피아 대표	200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리토피아에서 출판·문화예술 사업을 운영하며 출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민간 문화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국 출판문화와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이바지함
7	정서우 (1984.03.16.)	뉴스리포트 대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간 뉴스리포트」 창간 후 도서출판 신비를 운영하며 언론·출판 활동과 SNS 확장으로 디지털 문화사업 발전에 기여함.
8	한영예 (1956.07.01.)	예술가 대표	2010년 창간된 시전문계간지 「예술가」를 2014년 인수하여 한국의 대표적 시 전문잡지로 세우는데 기여함
9	김영환 (1964.10.11.)	일우디앤피 대표	2019년부터 「3D Printing Korea」를 발행해오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3D 프린팅 관련 국내 및 해외 글로벌 최신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고급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함
10	김정섭 (1970.03.24.)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문화정책·문화산업 연구자로서 「한국 대중문화 예술사」 발간과 근대 잡지 및 한류 기원 연구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적 기반을 체계화하였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정책기획 활동과 학술·산업 현장에서의 연구 및 제언을 통해 출판·잡지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 특히 AI·DX·AX 시대에 잡지산업을 데이터 산업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책 방향과 협업 전략을 제시하여 잡지문화 발전과 문화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함
11	정현숙 (1955.05.29.)	(사)차상찬 기념사업회 이사장	(사)차상찬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일제강점기 대표 잡지 언론인 차상찬 선생의 업적을 연구, 출판, 대중화하여 잡지 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함